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- 문의 : 문화관광연구부 김형오 연구위원
(063-280-7172)
- 담당실장 : 연구실장 이강진 연구위원
(063-280-7161)

보도시점 : 2017년 2월 24일(금) 12시부터

전북, '복합형 숙박·체류형' 관광객 늘었다!

▲ 2개 시·군 이상 방문객 19.9% → 32.1%로 증가

▲ 숙박여행객 44.4%, 2013년(40.1%) 대비 4.1%p 증가

▲ 관광객 체류시간도 상승추세, 당일 여행객 소폭 감소

▲ 재방문 91.5%, 추천의향 91.8% 관광객 만족도 분석 변화

▲ 전북 관광객 55.0% 재방문 시 '전북투어패스' 구입 의향 조사

▲ 40대(28.3%),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 관광객 구입의향(36.1%) 최고

● 전북연구원, '2016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' 발간 ●

● <1~12월까지 분기별(12일/1분기) 전북 14개 시·군 대표관광지에서 총 6,6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분석 결과입니다. >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>

-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광 형태가 2개 시·군 이상을 잇는 복합형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고, 숙박·체류형 관광객들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.
- 전북연구원(원장 강현직)이 전라북도 관광 현황의 정확한 이해와 명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보고서를 출간했다.
- 전북연구원이 발간한 '2016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' 정책 브리프에 따르면, 전라북도 관광객의 전반적 만족도가 평균 3.80점으로 2013년(3.69점) 대비 약 0.11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특히 재방문 의향 91.5%, 추천 의향 91.8% 등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.

- 또한, 1개 시·군을 방문하는 단일형 관광객이 67.9%로 2013년 80.1% 대비 12.2%p 감소한 반면, 2개 시·군 이상을 방문하는 복합형 관광객은 2013년 19.9%에서 32.1%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.
- 숙박여행객도 44.4%로 2013년(40.1%) 대비 4.1%p 증가하였으며, 당일여행객이 59.7%에서 55.6%로 감소하여 관광객 체류시간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- 전북연구원 김형오 박사(문화관광연구부)는 “관광 만족도 증가 및 체류시간 증대는 토탈관광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라북도의 정책적·실천적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결과”라고 설명하면서, “전북 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전략적이고 탄력적이 대응책을 마련하여 급변하는 관광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마련책 모색이 시급하다”고 강조하였다.
- 또한, 전라북도 관광객 중 약 55.0%의 관광객이 향후 전라북도 재방문 시 전북투어패스를 구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40대 관광객(28.3%)과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 거주 관광객의 구입 의향(36.1%)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.
- 전북투어패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‘홍보강화의 필요성’(57.5%)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, 그 외 ‘이용서비스의 다양화’(18.1%), ‘높은 제휴서비스의 할인비율’(11.7%) 등을 중점 과제로 제기했다.
- 전북연구원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(12일/1분기)로 전북 14개 시·군의 대표관광지에서 총 6,61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.
- 김형오 박사는 “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관광객 통계 데이터를 확보하여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북 관광의 질적 개선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하였다. <끝>

※ 붙임 : ‘2016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’ 정책브리프